

2017년 5월 1일 오늘의 아침편지

살 길, 죽을 길
生きる道、死ぬ道

- 명량에서 적을 맞겠다.
- 鳴梁で敵に会いそうだ

우수영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기다리자.
右水營まで、もどろう。戻って待とう

오늘밤 전 함대는 발진하라.
今日の夜、全艦隊は発進せよ

장졸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兵将たちの顔が凍り付いた

나는 다시 말했다.
私はもう一度言った

- 사지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 死地では、生きる道がない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것이 아마도 살 길이다. 살 길과 죽을 길이
それが、おそらく生きる道だ。生きる道と死ぬ道が

다르지 않다. 너희는 마땅히 알라.
変わらない。お前たちは、すべからく知りなさい

- 김훈의 《칼의 노래》 중에서 -
- キム・フンの〈ナイフの歌〉より -

- * 삶은 늘 갈림길입니다.
- * 人生は常に、分かれ道です

하나는 살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을 길입니다.
一つは生きる道で、もう一つは死ぬ道です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恐れを勇氣に変えよう。生きようとする人は死に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성웅 이순신의 웅변에
死のうとする人は生きるのだ”偉大な英雄舜臣の雄弁に

답이 있습니다. 삶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용기로,
答えがあります。人生の別れ道に立つ時ごとに、恐れを勇氣に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絶望を希望に、痛みを治癒に変えるのです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それが、我々がすべからく歩かなければならない

살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生きる道です。

우수영 (右水營)

[명사] [역사] 右水營; 朝鮮王朝時代, 右水軍(...

함대 (艦隊)

[명사] 艦隊.

장졸 (將卒)

[명사] 將卒; 將兵.

얼어붙다

[자동사]

凍結する; 氷結する; 凍りつく; 氷が張り...

(緊張・恐怖で) 体がこわばって動かなくなる...

마땅히

[부사] 当然; 正に; すべからく.

성웅 (聖雄)

[명사] 偉大な英雄.

웅변 (雄辯)

[명사]

雄弁.

(主に, '웅변으로' の形で) '明らかに' の意を表...

2017년 5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

영웅 이야기
英雄の話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다.
人は簡単に傷を受ける

수많은 한계들 속에 수많은 실수들을 연발한다.
沢山の限界の中に、沢山の失敗を連発する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들은 도처에 존재한다.
死を決心するようになる瞬間は、至る所に存在する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
しかし、このような状況でもう一度立つ瞬間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의 끝까지
話が始まる。その話の終わりまで

최선을 다해 걸어온 사람을
最善を尽くして歩いてきた人を

우리는 영웅이라 부른다.
我々は英雄と呼ぶ

- 김서영의 《프로이트의 편지》 중에서 -
- キム・ソヨンの〈フロイトの手紙〉より -

* '영웅 이야기' 는
* '英雄の話' は

먼 발치 남의 일이 아닙니다.
遠い端の他人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

나의 삶 그 자리에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私の人生、その場所で私が作るのです

아픈 상처와 절망의 계곡에서 다시 일어난 순간,
痛い傷と、絶望の溪谷からもう一度立つ瞬間

당신의 이야기는 놀랍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あなたの話は、驚くほど湧き上がりはじめます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もう一度立って、さらに立って、さらに立ちながら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자락에 매달린
最後まで走れば、その終わりにぶら下がっている

'영웅 이야기' 하나가 탄생됩니다.
'英雄の話' 하나가誕生します

당신이 영웅입니다.
あなたが英雄です

발치

[명사]

寝るときの足下の方. (⇔머리맡)

場所や建物の下端や端.

足のある方.

솟구치다

[자동사]

(勢いよく)跳ね上がる;突き上がる;ほとぼしる.

(感情・力などが)わき上がる;盛り上がる;ほとぼ...

[타동사] (体を勢いよく)跳ね上げる.

매달리다

[자동사]

['매달다' の受け身] 吊られる;ぶら下げられる.

(늘어짐)ぶら下がる;取り継る;しがみつく.

(따라붙다) ずがる;くつつく.

2017년 5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
新しい種類の人間

붓다는
ブッタは

영적 삶의 원형이 되었고,
靈的生活の原型になって

담마와 님바나의 화신이 되었다.
ダンマパダ（真理）とニッバーナ（涅槃）の化身になった

그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었다. 탐욕과
彼は新しい種類の人間だった。強欲と

증오에 따른 번뇌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憎悪による煩惱に巻き込まれなかったため

심리를 조정함으로써 자아를 초월하여 살았다.
心理を調整することで、自我を超越して生きた

그는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彼は続けてこの世の中で生きたが、同時に

다른 성스러운 영역에 속해 있었다.
他の聖なる領域に属していた

- 카렌 암스트롱의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중에서 -
- カレン・アームストロング〈自ら悟った者ブッタ〉より -

* '담마'는 진리를,
* 'ダンマパダ'는心理を

'님바나'는 열반을 뜻합니다.
'ニッバーナ'は、涅槃を意味します

인간이되 보통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人間になって、普通の人間とは全然違う

차원을 달리하는 영적 원형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次元を異にする、靈的原型の人間という意味です

그렇기에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そうして、2500年が過ぎ、今日までたくさんの人に

진리와 열반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心理と涅槃の道を開いてくれているのです

자아를 초월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고
自我を超越して煩惱を離れることができ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新しい種類の人間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영적 (靈的)
[관형사][명사] 靈的. (↔육적(肉的))
ごうよく [強欲·強慾] 발음 재생
탐욕. (=どんよく)
증오 (憎惡)
[명사] 憎惡.
번뇌 (煩惱)
[명사] 煩惱; 濁り; 愛染; 塵勞.
휘말리다
[자동사]
['휘말다1' の受け身]ぐるぐる卷かれる.
巻き込まれる.
조정 (調整)
[명사] 調整.
성스럽다 (聖一)
[형용사] 神聖だ; 神神しい.
영역 (靈域)
[명사]
靈域; 靈地; 靈場; 神域.
묘場.
열반 (涅槃)
[명사] [불교] 涅槃.
차원 (次元)
[명사] 次元.
달리하다
[타동사] 異にする. (↔같이하다)

2017년 5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

향기가 낭자하다
香りが飛び散っている

저렇게 농익을 때까지
あのように熟するときまで

한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던 것인가
同じ場所にどれだけ座っていたのか

비명도 지나가고
悲鳴も過ぎ去って

한숨도 지나가고
ため息も過ぎ去って

너를 낳아준 어머니의 한숨이야 말할 것 없겠고
あなたを生んだ母のため息も言うまでもなく

터질 것처럼 붉은 해 두 알
破裂しそうな赤い太陽の二粒

업보를 다 덮어줄 푸른 손바닥
因果をすべて覆いつくしてくれる青い手のひら

때 된 것들의 만남
時が来たことの出会い

향기가 낭자하다
香りが飛び散っている

- 한순의 시집 《내안의 깊은 슬픔이 말을 걸 때》에 실린
- ハンスンの詩集〈私の中の深い悲しみが言葉をかけるとき〉に掲載された

시 〈연잎 아래 감 두 알〉 (전문)에서 -
詩 〈蓮の葉の下、柿二つ〉 (前文) より-

- * 시인의 시선은 놀랍습니다.
- * 詩人の視線は驚きます

푸른 연잎에 떨어진 감 두 알을 보고
青い蓮の葉に落ちた、柿二つを見て

지난 시절의 비명과 한숨을 읽어냅니다.
過ぎ去った時節の悲鳴と、ため息を読みとります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자리를 오래 지키기가
人生も違いありません。一つの場所を長く守るのが

참 어렵습니다. 비바람과 천둥, 비명과 한숨이
とても難しいです。雨風と雷、悲鳴とため息が

수없이 교차합니다. 그 세월을 오래 견디면서
数えきれず交差します。その年月を長く耐えながら

익을 만큼 익으면 저절로 내뿜는 향기가
熟すほど熟せば、おのずから放つ香りが

사방에 가득합니다.
四方にいっぱいです

낭자하다 (狼藉—)

[형용사] 取り散らかして乱雑だ.

농익다 (濃—)

[자동사] 爛熟する; 熟しきる.

한자리

[명사]

同じ席[場所].

一つの地位(官職); 重要な職位; 要...

터지다

[자동사]

(싸움·사건 등이) (事が) 突発[勃発]する; 起こる.

(갈라져서) (塊をなしたものが) 割れる; (張り) 裂ける; 爆発(...)

[보조동사] 用言の語尾 ‘—어’ · ‘—아’ などの後に付いて, 事...

한숨

[명사]

一息; 一休み; 一眠り.

ため息; 嘆息.

업보 (業報)

[명사] [불교] 業報; 業; 因果.

연잎 (蓮—)

[명사] [식물] ハスの葉. (=연엽)

내뿜다

[타동사] 噴き出す; 吹き付ける[掛ける]; ほとばしらせる.

2017년 5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

혼자 비를 맞으며
一人雨に打たれながら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人がちゃんと生きていくことは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다.
誰かの心に種を植えることのように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뒤에도
ある種は私が植えた事実をすっかり忘れた後にも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すくすく育って、巨大な木になる。生きてみて一人雨にあう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寂しい時節を迎えるとき、上である豊かな木が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枝と葉で、雨を防いでくれれば、そうして知ることになる

' 그 때 내가 심었던 그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 そのとき私が植えた、その些細な種がこのように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立派な木になって私を覆ってくれたのだと'

- 위지안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서 -
- 于娟의 <今日私が生きる理由> より -

* 살다보면
*生きてみれば

혼자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一人雨にあうときがあります

온몸이 흠뻑 젖어 외로움이 더해집니다.
全身がびっしょり濡れて寂しさが加わります

그러나 바로 그때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만남의
しかし、まさにその時が新しい発見、新しい出会いの

시작입니다. 가물가물 잊힌 멀고 오래전 인연들이
始まりです。ゆらゆら忘れた遠く昔の因縁が

우연처럼 기적처럼 나타나, 우산이 되어 주는 것을
偶然のように奇跡のように現れ、傘になってくれることを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충만함으로 바뀌고
経験するようになります。寂しさは充満に変わり

온몸은 사랑으로 흠뻑 젖습니다.
全身は愛でびっしょり濡れます

쓸쓸하다

[형용사]

(날씨가) うすら寒い; 冷え冷えする; 肌寒い. [작은말] 쌀쌀...

(사물·마음이) (うら)寂しい; わびしい.

풍성하다 (豊盛—)

[형용사] 豊かだ; ふんだんだ.

감싸다

[타동사]

包み隠す; おおい隠す; くるむ.

かばう; 庇護する.

흠뻑

[부사]

十分に; たっぷり; うんと; 思う存分; 心ゆ...

すっかりぬれるさま: びっしょり; びしょびしょ; ぐっしょり; びちゃびち...

가물가물

[부사] ちらちら; ゆらゆら; ぼうっと; ぼんやり.

잊히다

[자동사] ['잊다' の受け身] 忘れるようになる; 忘られる; 忘れら...

20170506.txt

2017년 5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석병선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ソク・ビョンソ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私が何かを探しているなら

우리가
我々が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何かを探しているなら

그 무언가 역시 우리를 찾고 있다.
その何かもまた我々を探している

- 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 중에서 -
- パウロ・コエーリオの〈アレフ〉より -

* 가는 순간, 오고 있습니다.
* いく瞬間、来ています。

가는 것과 오는 것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行くことと来ることはお互い会うようになります

사람, 사랑, 일, 뜻은 오고 있습니다.
人、愛、仕事、意味は来ています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来ること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만남은 선물이며,
その出会いは贈り物で

삶의 보물입니다.
人生の宝物です